

청년·예술·지역이 어우러진 '서남예술장' 개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 기반 시각예술단체 1995헤르츠(Hz)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서남예술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서남동 인쇄의 거리 일대에서 '서남예술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트마켓, 공공예술 전시, 인쇄 소리를 접목한 DJ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 주민, 상인이 함께 참여해 예술과 인쇄의 융합을 통해 서남동 일대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서남예술장'은 지난 2022년 금수장 관광호텔에서 열린 <계림보부상-금수예술장>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아트마

14~16일 인쇄의 거리서 아트마켓·전시 등 다채

켓&축제로,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확장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서남예술촌 조성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서남장'과 '예술장'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서남장은 서남동의 장소성과 인쇄문화의 정체성을 탐구해 지역 산업 유산을 예술로 재해석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예술장은 지역 인파의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해 작품 전시·판매 및 교류를 이어가며 창작 기반을 넓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와 연계해 청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

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소개하고, 아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의 전시도 함께 선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서남예술장은 청년 예술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쇠퇴한 인쇄거리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서남동을 찾아 청년들의 작품과 서남동만의 특별한 매력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남예술촌, 동구 청



년센터 아지트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청년문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수 기자

광주 사직도서관, '책으로 마음 잇는 가족' 독서행사 29일 독서골든벨·북큐레이션 등 다채... 가족 단위 독서문화 확산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은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사직도서관 북카페 이음과 다목적실에서 '2025 사직도서관 단무지(단순·무한·지속) 독서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 가족이 함께' 책으로 마음을 잇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 단위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중심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세대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공연, 독서퀴즈 골든벨, 북큐레이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초등학교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20개 팀(총 60명)이 참여하는 '독서골든벨'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퀴즈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가 신청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립통합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go.kr)의 문화행사→문화강좌 신청→사직도서관 메뉴에서 하면 된다. '독서골든벨'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



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happy3535@korea.kr) 또는 사직도서관 사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인숙 사직도서관리장은 "이번 독서행사는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나주문화재단이 예술인, 기획자,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감각을 나누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오는 11월 15일 나빌레라문화센터 일대에서 '네트워킹 파티: 티키타카'를 열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연결과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지역 특화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이 올해 6월부터 지역 예술가와 기획자를 직접 발굴하고 이들의 창의적 기획을 실현한 결과물이다.

예술가와 기획자의 감각 확장, 시민의 문화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오전 10시에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티키타카: 아트 워크숍'이 열린다.

나주문화재단, 예술 감각 깨우는 '네트워킹 파티 티키타카'

지역문화 생태계 잇는 창의와 소통의 무대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신희희 대표와 김미영 부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일깨우고 창의성을 확장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에는 나빌레라문화센터 주차장과 인근 골목길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향유 부스 9개가 운영된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나주굿감'과 '지역문화 예술인 역량강화-Round N' 수료생들이 기획한 인공지능 즉흥 작곡, 실내 방향제 만들기, 감정 페인팅, 말차 체험 및 시음, 가을 풍경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스탬프 투어와 길바닥 드로잉 체험 이벤트를 통해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오후 6시부터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주읍성 줄기(줄다+조깅)'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나주읍성권 일대를 달리며 쓰레기를 쬐는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줄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세트(가방, 생수, 야광 암밴드)가 제공되며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이 수여된다.

나주문화재단 김찬중 대표이사는 "이번 '티키타카'는 예술가와 기획자, 시민이 서



로의 감각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나주의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문화예술회관, 연극 '기도문' 공연 개최

상실과 위로의 이야기, 음악과 연기로 만나는 깊은 감동

순천시는 오는 14일(금)과 15일(토),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극 '기도문'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배우 강애심, 임강희 그리고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해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연극 「기도문」은 아들을 잃은 북한 여인 A와 딸을 잃은 남편 여인 B가 피아노 독주회상 객석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나 서로 마주하지 않은 채, 각자의 내면과 상처를 담담히 풀어놓으며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극의 마지막에 연주되는 슈베르트의 '기도문'은 '모든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원제처럼, 사회적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남겨진 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무대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강애심'과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광화문 연가>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배우 '임강희'가 출연한다. 여기에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피아니스트가 합류해 진정성 있는 무대를 완성한다. 순천/정성인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만)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고흥군대청소녀영양정 일원에서 '11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 분청 빛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감성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람객 특별 무료 체험으로 ▲고흥분청사기 물레 체험 ▲자개 스티커 도자기 만들기 ▲스테인드레코 무드등 만들기 등

고흥군, '가을빛 분청문화의 날' 행사 개최

감성 버스킹·분청사기 물레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 마련

영되며 ▲분청사기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가족공예 카드 지갑 만들기 등 유료 체험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체험과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물찾기, 행운의 경품 추첨 이벤트가 마련돼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물관 문화상품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현장 판매 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먹거리 부스에서는 즉석에서 구워내는 통돼지 바비큐를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을 1천 원의 저렴한

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가을 정취와 감성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0만 관람객을 돌파하며, 고흥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